

Issue No.  
2017-8  
August 2017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유엔 주요 소식

####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8차회기 개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1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과의 오레스트 노우사드 부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8차회기를 개최하였다. 동 회기동안 위원회는 파나마, 모로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우사드 부서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마리아 레예즈 전 의장이 장애와 접근성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카타리나 드반다스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지난 6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 회의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과 지리학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테레사 데그너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로 25개 회원국이 전국적 설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장애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끔 워싱턴 질의서(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를 활용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큰 성과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회기동안 6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외에도 장애인의 독립적 삶 영위와 공동체로의 통합 등에 관한 일반견해 제5호 초안 작성을 계속해서 논의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권리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고서 심의는 15일 파나마의 국가보고서를 시작으로 모로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 주요 소식

고문방지위원회 제61차회기 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1일 제61차 회기를 폐회하며, 안티가바부다, 아일랜드, 파나마, 파라과이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을 다룬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의 엔 모드비그 의장은 제61차 회기를 마무리하며 4개국의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고문방지협약 보고서 제출을 다루는 고문방지협약 제19조와 보복 등을 다루는 22조, 비공개 조사에 관한 제20조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또한 13건의 개인진정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특별보고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한편 제62차회기는 11월 6일 - 12월 6일 개최될 예정이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카메룬, 모리셔스, 몰도바, 르완다, 동티모르의 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유엔 주요 소식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3차회기 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5일 제93차 회기를 폐회하며 쿠웨이트,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지부티, 타지키스탄, 캐나다, 뉴질랜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다룬 국가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아나스타샤 크리클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 회기동안 8개국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으며, 조기 경고 및 긴급 절차에 따라 미국과 나이지리아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아나스타샤 의장은 한 회기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인종차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또한 위원회가 동 회기 중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27개국과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국 모두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위원회 제94차회기는 11월 20일-12월 8일 진행되며, 알제리, 호수, 벨라루스, 요르단, 세르비아, 슬로바키아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 유엔 주요 소식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제27차회기 개최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9월 4일-13일 제27차회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회기동안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멕시코의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게 된다.

4일 열리게 될 개회식에서는 제27차회기 의제와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며, 이주노동자협약의 전세계적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부단체와 인권기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심의대상국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며, 유엔 기구와 특별 기구와의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4일 오후 에콰도르의 제3차국가보고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제1차국가보고서, 멕시코의 제3차국가보고서가 심의되며, 그 후 실무그룹과의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행사달력

### 2017년 9월 UN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9/4-8	장애인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제8차회의	
9/4-13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제27차회기	
9/4-15	강제실종위원회 제13차회기	
9/11-19	인권이사회 제36차회기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